

편모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Single Mothers'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 교수 김 경 신

박사과정 김 오 남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

Associate Prof. : Kyeong-Shin Kim

Doctoral Course : Oh-Nam Kim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were to find the general trends of single mothers' stressor, self-esteem, family resources, coping,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o test a causal model of family resources, coping and stress influencing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e data were analyzed from the 283 single mothers living in Kwang-ju.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Scores of single mothers' stress, family resources were lower than median. But scores of single mothers' stressor, self-esteem, coping,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were higher than median. Their problem-focused coping scores were higher than emotion-focused coping.

2. Single mothers' life satisfaction were directly affected by self-esteem, family resources, problem-focused coping and stress, and were indirectly affected by stressor, emotion-focused coping. Single mothers' depression were directly influenced by self-esteem, family resources, emotion-focused coping, problem-focused coping and stress, and were indirectly influenced by stressor.

I. 서론

서구화에 의한 영향으로 가족주의가 약화되어감에 따라 과거에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형태

만이 완전가족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독신 또는 편부모가족 등도 다양한 가족형태 중의 하나라는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편모가족의 점유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은 기혼여성인구의 17.3%와 기혼남성인구의 2.9%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1995). 조이혼율도 1970년대초 0.1%, 1980년대초 0.8%, 그리고 1995년은 1.5%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1960년대와 1990년 사이 이혼가구주수는 35천에서 174천으로 5배정도 증가하였고, 사별가구주수는 455천에서 1196천으로 2.6배 정도 증가하였다(통계청, 1996). 편부모가족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하리라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가현상으로 볼 때 편모가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편모들은 가사와 자녀양육역할 이외에 생계부양자역할까지 하도록 기대되고 있어 역할과중에 시달리고 있으며 건강상의 문제, 남녀차별적인 사회구조 등으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사회관계망의 변화까지 경험하게 되어 가족내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재적응해야 하는 상황을 갖게 된 편모의 이러한 취약한 위치는 빈곤의 세대계승, 청소년자녀 문제와 같은 사회적 관심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편모가 어떻게 가족자원을 사용하고 대처하는지가 가족의 적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 가족자원은 가족체계의 목표나 요구를 달성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문제해결에 필요한 잠재력을 가진 요인으로서 긴장을 감소시키고 갈등을 조절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처행동은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가족체계자원들을 강화,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Deacon & Firebaugh, 1988; Lazarus & Folkman, 1984). 결국 이들은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주며(Small, 1988) 따라서 이들 변인간 관련성을 파악하여 편모가족의 적응과 발달에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홀로된 이유 등의 몇몇 변인이 편모가족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사별보다는 이혼한 편모의 스트레스가 더 높았고(조희선, 1991), 또한 가족자원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경우 혹은 외부로부터의 지지가 적절하게 주어지는 경우에는 스트레스

인지가 낮게 나타났다(김영희, 1996; 박상희, 1993; Colletta, 1979). 대처에서도 스트레스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다양한 대처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Amato, 1993; Hyman & Wog, 1982).

궁극적으로 편모의 스트레스는 심리적 복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심리적 복지란 개인이나 가족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질병이 없고 역할책임감을 적절히 수행하며 독립적인 정체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Kiston, Babri, Roach & Placidi, 1989). 또한 심리적 복지는 건강과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감 및 적응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 편모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비취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편모의 심리적 복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및 관련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데 이제까지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면, 자존감이 높은 경우 심리적 복지가 높게 나타났으며(Parker, 1994), 친구와 친척은 편모에게 특히 이혼 후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안명자, 1994; 조희선, 1991; 한경혜, 1993; Gerstel, 1988), 편모의 부모형제 등은 편모에게 동반자의 역할이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도움을 제공하는 등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Bursik, 1991; Spanier & Castro, 1979; Weiss, 1975), 또한 대처전략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수동적 대처보다 적극적 대처를 할수록 더 높은 심리적 적응을 나타내었다(한경혜, 1993; Berman & Turk, 1981), 스트레스는 심리적 복지의 중요한 예측변수이며 특히 경제적, 사회적 스트레스는 심리적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낮은 생활만족과 높은 우울을 나타낸다(Burden, 1986; Schwarzberg & Dytell, 1988).

따라서 편모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원, 자존감, 가족자원, 대처, 스트레스인지와 심리적 복지 등의 다각적인 인과분석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에 관한 통합적 관계분석이 요구되며, 결과 분석에 있어서도 홀로된 원인을 구분하여 사별과 이혼간 특성을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편모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 편모를 대상으로 스트

레스윈, 자존감, 가족자원, 대처, 스트레스인지와 심리적 복지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며, 스트레스윈, 자존감, 가족자원, 대처와 스트레스인지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편모가족의 생활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편모의 스트레스윈, 자존감, 가족자원, 대처, 스트레스인지와 심리적 복지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홀로된 원인 별로 그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편모의 스트레스윈, 자존감, 가족자원, 대처와 스트레스인지가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II. 선행연구고찰

1. 편모가족의 스트레스

편모가족의 스트레스연구는 편모와 그 자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스트레스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트레스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환경적 변화와 부정적 반응사이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Hill(1971)이 개발한 ABC-X모델에 근거하여 편모가 인지한 스트레스윈, 가족자원, 대처, 스트레스인지와 심리적 복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즉 A(스트레스윈), B(가족자원과 대처), C(스트레스인지), X(적응)요소로 구성되는데 가족이 스트레스윈(A)에 대항하는 자원으로 가족자원과 대처(B)에 따라 그 상황을 주관적으로 정의하는 스트레스인지(C)가 심리적 복지(X)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이다.

편모들이 겪는 스트레스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혼자 가계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경제적 어려움과 배우자와의 이별로 인한 편모의 절망, 고독감 등을 대부분의 연구들(공세권 조애저 허미영, 1995; 김선영, 1991; 조희선, 1991; 박상희, 1993; Berman & Turk, 1981; Compas & Williams,

1990; Clark, Siviski & Weiner, 1986; McLanahan & Booth, 1989; Richards & Schmiede, 1993)에서 언급하고 있다.

자녀양육문제 역시 편모가족의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자녀양육의 패턴과 일상적 대화패턴의 파괴, 편모의 자녀에 대한 요구 등으로 스트레스가 높으며(조희선, 1991; 한경혜, 1993; Webster-Stratton, 1989), 특히 우리 나라 편모들은 자녀관련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는데 구체적으로 자녀의 앞날에 대한 걱정, 자녀를 돌볼 시간부족 등이 제시되었다(한경혜, 1993).

또한 홀로된 원인별로 볼 때 사회활동의 참여나 대인관계측면에서 주변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경험하게 되는 이혼여성의 경우 더욱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조희선, 1991; 한경혜, 1993; Katz & Pesach, 1985) 사별보다는 이혼한 편모의 스트레스가 전체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김정자, 1988; 조희선, 1991).

2. 편모의 심리적 복지

심리적 복지는 행복, 적응, 삶의 질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람, 시간, 장소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어 명호가치 규정짓기는 어렵다. 정서적 측면을 강조한 Bradburn(1969)은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구별하여 이들의 균형상태를 행복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장재정(1987)도 객관적인 상황에서 영향을 받지만 개인의 경험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지각이며 개인의 삶의 양상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부정적,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선행연구들(Burden, 1986; Fine, McKenry, Donnelly & Voydanoff, 1992; Greene & Feld, 1989)에서도 심리적 복지를 정서적, 주관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여 긍정적 측면인 생활영역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을 보고 부정적 측면의 대표적 증상인 우울정도 두가지로 나누어 측정해 보고자 한다.

일반가족에 비해 편모의 심리적 복지는 낮게

나타났으며(Doherty, Su & Needle, 1989; Marks, 1995), 편모의 생활만족은 중간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Demo & Acock, 1996; Gove & Shin, 1989; Mastekaasa, 1996). 우울의 경우 사별이나 이혼한 편모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증상은 약화되었다(Degarmo & Kiston, 1996; Gove & Shin, 1989; Hughes & Gove, 1981; Marks, 1995).

홀로된 원인별로 보면 사별한 편모가 이혼한 편모보다 복지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Demo & Acock, 1996; Gove & Shin, 1989). 생활만족에서는 이혼한 편모가 사별한 편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Gove & Shin, 1989; Marks, 1989; Mastekaasa, 1996), 우울에서는 사별한 편모가 더 높게 나타난 연구(Demo & Acock, 1996)와 이혼한 편모가 더 높게 나타난 연구(DeGarmo & Kiston, 1996; Gove & Shin, 1989; Hughes & Gove, 1981; Marks, 1995)간에 혼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별한 편모보다 이혼한 편모가 생활만족과 우울이 동시에 높다고 한 연구들(Demo & Acock, 1996; Hughs & Gove, 1981; Shapiro, 1996)이 있어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별과 이혼한 편모의 심리적 복지를 비교평가하기 위해서는 좀더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리라 본다.

3. 편모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스트레스는 심리적 복지와 부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Demo, Small & Savin-Williams, 1987; Lavee, McCubbin & Olson, 1987). 편모가족은 일반가족보다 더 스트레스적인 생활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적응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Weinraub & Wolf, 1983). 편모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스트레스 인지가 높은 부정적 정서와 행복과 관련되어 심리적 복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조희선, 1991; Greene & Feld, 1989; Simons et al, 1993), 낮은 가족생활의 질(Pittman & Lloyd, 1988), 낮은 생활만족과 높은 우울(Burden, 1986)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경제적 형편이 좋은 경우 생활만

족도가 높고 우울이 낮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문제가 나타날 경우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한경혜, 1993).

스트레스영역별로 보면 첫째, 이혼이나 별거한 경우 재정적 스트레스와 가정생활스트레스는 가정생활의 질과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김선영, 1991; Pett et al, 1994; Pittman, & Lloyd, 1988; Spanier & Thompson, 1984). 둘째, 편부모는 자녀 양육스트레스로 인하여 가정생활에 덜 만족하고, 우울이 더 높게 나타났다(Fine, Donnelly & Voydanoff, 1987). 셋째, 가족역할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역할스트레스가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예측 변수임을 밝히고 있다(Dytell & Schwarzberg, 1986; Schwarzberg & Dytell, 1988). 넷째, 편모는 경제, 가족, 개인의 건강문제가 높은 경우 더 높은 우울, 불안을 느끼며 더 많은 정신적 증상을 보인다(Compas & Williams,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스트레스상황과 요인이 심리적 복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그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4. 관련변인과 심리적 복지

1) 자존감과 심리적 복지

일반적으로 높은 자존감과 개인의 복지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존감이 높은 경우 정신적으로 건강하고(Weiner, 1970), 직업만족도가 높으며(Simpson & Simpson, 1959), 결혼만족도가 높고(Stinnett & Walters, 1977),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사용한다(Pearlin & Radabaugh, 1976)고 하였다(Small, 1988 재인용). 또한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임재희, 1995) 우울증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어(이미정, 1995) 심리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모의 경우 자존감은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긍정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우울과는 부적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여 자존감이 생활만족 및 우울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Amato,

1994). Parker(1994)도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자존감이 변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자존감이 높게 나타나며 이를 통해 복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편모의 자존감은 편모 자신 뿐만아니라 자녀의 복지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Taylor & Roberts, 1995). 따라서 자존감이 복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이러한 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2) 가족자원과 심리적 복지

가족, 친구, 및 기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에 주요한 매개변수의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친구와 친척은 여성에게 특히 이혼후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며(안명자, 1995; 조희선, 1991; 한경혜, 1993; Gerstel, 1988; Plummer & Koch-Hattman, 1986). 친구는 가족이 제공할 수 없는 정서적 안정성을 제공한다(Hunt & Hunt, 1977; Price-Bonham & Balswick, 1980). 또한 가족들은 편모가족에게 동반자의 역할이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도움을 제공하며 자녀를 돌보아 주거나 임시로 거처할 곳을 제공하기도 하는 등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Bursik, 1991; Spanier & Castro, 1979; Weiss, 1975). 특히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혼 후 1년동안의 부모와의 접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등을 포함한 사회적 지지를 받은 경우 우울이 낮게 나타나며(Bankoff, 1983; Marks, 1995; Taylor & Roberts, 1995), 전반적인 심리적 복지수준이 향상되었다(Greene & Feld, 1989; O' Bryant, 1988; Simons, Bearman, Conger & Chao, 1993).

편모의 가족적응에는 가족자원 중 사회적 지지 외에도 사회관계망의 크기가 이혼에 대한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Plummer & Koch-Hattman, 1986), 지지체계의 존재와 유용성도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Gladow & Ray, 1986). 최근 편부모를 대

상으로 한 신화용 조병은(1996)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자원, 사회적 자원, 가족관계적 자원, 경제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 가족자원 중 경제적 자원만이 편모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도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가족이 건강할 때 적응이 높게 나타났고(Bowen, Orthner & Zimmerman, 1993; O' Bryant, 1988) 특히 편모의 건강상태가 양호할 때 심리적 복지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안명자,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자원을 재정적 복지, 가족건강, 사회적 지지 중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를 중심으로 심리적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3) 대처와 심리적 복지

편모들이 어떤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그 대처가 심리적 복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았다. Berman과 Turk(1981)는 이혼한 편모를 중심으로 사회활동, 학습, 개인적 이해, 감정표현, 독립성 및 가정활동의 6개 대처방식을 추출했는데 생활만족도에는 사회활동, 가정생활, 감정표현 및 독립심 대처방식이 영향을 미쳤고 정서상태에는 사회활동, 감정표현, 독립심을 기르는 대응방식이 영향을 미쳤다. 조희선(1991)의 일반가족과 편모가족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문제해결적 대처와 정서적 대처방안을 이용해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경혜(1993)는 적응에 대처전략들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높은 적응을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은 대처를 측정하는데 일관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대부분의 결과가 일치되지는 않았으나 대처의 사용유무와 종류에 따라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다르게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처방식 중 문제해결적 대처와 정서적 대처로 나누어 이러한 대처가 심리적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1) 조사대상자의 선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편모 283명이다. 조사지역은 광주광역시 5개구의 구성비가 고루 분포되도록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자녀에게 어머니용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토록 하였고 설문을 끝낸 후 밀봉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1996년 10월 21-26일까지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일부 수정 보완한 설문지로 1996년 11월 18일-12월 4일까지 320부를 조사하여 312부가 회수되었으며 내용기재가 완전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28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편모연령은 40대가 전체의 61.5%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3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에서는 중졸과 고졸이 36.6%, 35.9%로 각각 나타났고, 종교는 기독교가 31.0%, 불교가 27.1%, 천주교가 12.0%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 자영업 판매직이 29.2%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어비스직이 21.5%, 주부는 20.8%이었다. 하루근부시간은 8시간이하가 31.8%, 12시간이상도 18.3%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31-60만원이하가 38.0%, 61-100만원이 35.4%로 편모가족의 어려운 경제상태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편모가 된 기간은 2-5년이 49.2%를 나타내었고 6-9년은 25.2%, 10-14년은 21.6%를 각각 나타내었다. 편모가 된 원인은 사별이 69.3%, 이혼이 30.7%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이 35.6%, 3명이 32.0%, 4명이상이 26.4%로 나타났다. 주거상태는 자가보다 전세와 월세가 54.2%로 높게 나타났고, 가족형태는 85.9%로 대부분 핵가족 형태였다.

2. 조사도구

1) 자존감

자존감척도는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항내용은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나도 다른 사람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총 10문항 점수범위는 10-50점이다.

2) 가족자원

가족자원척도는 McCubbin & Comeau(1987)의 FIRM(Family Inventory of Resources for Management)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하위영역은 재정적 복지(6문항), 가족의 건강도I(Family Strength I: 자존감과 의사소통-6문항), 가족의 건강도II(Family Strength II: 숙달감과 성취-7문항), 사회적 지지 중 도구적 지지(5문항), 정서적 지지(6문항)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총 30문항 점수범위는 30-150점이다.

3) 대처

대처방식의 척도는 Folkman, Lazarus, Dunkel-Schetter, DeLongis & Gruen(1986), Billings & Moos(1984), 등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크게 두 영역인 정서적 대처와 문제해결적 대처로 나누었고 정서적 대처에는 투사, 운명주의, 정서표출, 환상적 회피, 지적부인, 자기책망, 사회적 비교, 진정요법, 위축, 기원, 회화, 우유부단, 지연, 방어, 신앙으로 구성하였고 문제해결적 대처에는 이성적 행동, 대안적 선회, 도움요청, 인내, 긍정적 사고, 단계적 해결, 대체, 유연성, 재충전, 자아적응, 적극적 소거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정서적 대처 12문항 총점수범위는 12-60점이고, 문제해결적 대처는 총 11문항 점수범위는 11-55점이며 전체대처 23문항 총점수범위는 23-115점이다.

4) 스트레스도구

스트레스의 도구는 McCubbin(1981)의 FILE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과 Baruch & Barnett(1986)의 연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편모가족이 된 이후 경험한 사건을 스트레스원으로 보고 그에 따른 긴장이나 부담정도를 스트레스인지로 정의하였다. 스트레스원과 스트레스인지는 각각 27문항이며 가족관계(6문항), 재정적 문제(5문항), 편모의 직업-가정갈등(6문항), 대인관계(6문항), 건강 및 상실(4문항)을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스트레스원은 총 27문항으로 스트레스사건당 1점으로 총점수 범위는 0-27점이며, 스트레스인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총 27문항 점수범위는 27-135점이다.

5) 심리적 복지

심리적 복지척도는 생활만족과 우울 두 영역으로 나누었다. 생활만족은 Bradburn(1969)의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과 Olson과 Barnes(1982)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척도를 수정하여 생활만족을 측정하였다. 즉 가정생활, 자녀와의 관계만족, 시댁과의 관계, 직장생활, 여가생활 등에서 느끼는 만족의 정도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5점으로 12문항 가능한 점수범위는 12-60점이다.

우울은 Radloff(1977)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일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최근 생활에 대한 느낌이나 우울정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14문항 총점수범위는 14-70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문항들간의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측정한 Chronbach' α 를 산출하였는데 스트레스원은 .778, 자존감은 .890, 가족자원은 .852, 정서적 대처는 .802, 문제해결적 대처는 .834, 스트레스는 .856, 생활만족도는 .840, 우울은 .890로 각각 나타났다.

3. 자료의 분석

사용한 자료처리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Paired-t검증, 중다회귀분석과 경로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이상과 같은 통계처리는 SAS/PC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편모의 스트레스원, 가족자원, 대처,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의 일반적 경향 및 차이

1) 편모의 스트레스원, 가족자원, 대처,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의 일반적 경향

편모의 스트레스원, 가족자원, 대처,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의 일반적 경향은 <표 1>과 같다. 편모의 스트레스원은 총문항 27문항 중 사건이 있었으면 1점, 없었으면 0점을 주었는데 중간점수인 13.5를 넘는 21.68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사건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별한 편모와 이혼한 편모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편모의 자존감은 중간점인 3점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사별과 이혼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별한 편모가 이혼한 편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혼집단에서 낮은 자존감을 보이는 선행연구들(Hughes & Gove, 1981; Gove & Shin, 1989)의 결과와 일치한다.

편모의 가족자원은 평균 2.87로 중간(3.00)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각 하위영역을 볼 때 물질적 지지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가족의 건강도I(자존감과 의사소통), 재정적 복지, 정서적 지지, 가족의 건강도II(숙달감과 성취)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자원 중 외부로부터의 물질적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편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친정부모나 형제, 다른 친척이 정보나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표 1> 편모의 스트레스원, 가족자원, 대처,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의 일반적 경향

모변인	사별(N=196)	이혼(N=87)	t	전체(N=283)
	M(SD)	M(SD)		M(SD)
# 가족관계(1-6)	5.10(1.35)	5.14(1.25)	-.21	5.12(1.32)
경제문제(1-5)	4.38(.97)	4.52(1.04)	-1.09	4.42(.99)
직업-가족갈등(1-6)	4.94(1.45)	5.03(1.37)	-.49	4.97(1.42)
대인관계(1-6)	4.96(1.97)	4.15(1.95)	.83	4.15(1.96)
건강 및 상실(1-4)	3.05(1.20)	2.93(1.17)	.74	3.01(1.25)
전체스트레스원	21.63(5.42)	21.77(5.08)	-.20	21.68(5.30)
자 존 감	3.33(.67)	3.17(.55)	2.05*	3.28(.64)
재정적 복지	2.73(.77)	2.49(.78)	2.41*	2.65(.78)
가족의 건강도 I	3.16(.52)	2.95(.54)	3.07**	3.00(.53)
가족의 건강도 II	2.41(.74)	2.19(.74)	2.29*	2.35(.75)
물질적 지지	3.57(.68)	3.35(.66)	2.59**	3.50(.68)
정서적 지지	2.68(.70)	2.40(.79)	2.69**	2.50(.74)
전체 가족자원	2.94(.41)	2.71(.47)	4.18***	2.87(.44)
정서적 대처	2.97(.48)	2.90(.61)	-.23	2.98(.52)
문제해결적 대처	3.49(.58)	3.26(.60)	2.79**	3.42(.62)
전체 대처	3.22(.42)	3.12(.44)	1.81	3.19(.43)
가족관계	3.00(.73)	3.04(.67)	-.37	3.01(.71)
경제문제	3.20(.84)	3.42(.81)	-.42	3.33(.83)
직업-가족갈등	2.86(.71)	2.93(.72)	-.74	2.88(.71)
대인관계	2.36(.79)	2.36(.80)	.07	2.36(.79)
건강 및 상실	2.81(.98)	2.66(.88)	1.21	2.76(.95)
전체 스트레스	2.85(.57)	2.88(.56)	-.32	2.86(.57)
생활만족도	3.08(.56)	2.80(.62)	3.64***	2.99(.59)
우울	3.05(.70)	3.07(.70)	-.28	3.06(.70)

()안은 점수범위를 나타냄

*p<.05 ** p<.01 *** p<.001

보인다. 반면 숙달감과 성취영역을 나타내는 가족의 건강도II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편모와 자녀의 생활변화에 대한 인지와 성취지향적 성향이 낮음을 보여준다. 또한 편모의 정서적 지지점수도 낮게 나타난 점으로 보아 편모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 주변으로부터 심리적인 도움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별과 이혼집단간 하위영역간의 차이는 모든 영역에서 나타났으며 이혼집단보다도 사별집단의 가족자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별한 편모의 경우 이혼한 편모보다 재정적 원조, 자녀양육원조를 더 받는다고 한 연구(McLanahan, 1983)와 이혼한 편모가족은 일반적으로 이혼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빈곤, 이혼전의 가족갈등과 문제, 부모자녀 결속력이 낮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결과(Amato,

1987)와 비교해 볼 때 이혼이라는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생활환경 조건이 편모로 하여금 가족자원을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편모의 전체대처는 평균 3.19로 중간(3.00)을 약간 상회하는 대처를 보이고 있으며 문제해결적 대처가 정서적 대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별과 이혼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혼집단보다는 사별집단에서 더 높은 문제해결적 대처를 나타내었다. 이는 앞서 가족자원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혼이라는 요인이 대처에도 비효율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게 한다.

편모의 전체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은 평균 2.86으로 중간(3.00)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사별과 이혼집단간의 차이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영역 중 경제문제 영역

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하지는 않으나 사별집단보다 이혼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관계, 직업-가정갈등 순으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영역이 가장 낮은 스트레스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선행 연구들(공세권 조애저 허미영, 1995; 김선영, 1991; 김영희, 1996; 조희선, 1991; 박상희, 1993; Berman & Turk, 1981; Compas & Williams, 1991; Richards & Schmiege, 1993)과 일치되는 결과로서 사별과 이혼한 편모 모두 경제적 문제는 가장 큰 어려움이며 또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편모의 심리적 복지의 한 영역인 편모의 생활 만족은 평균 2.99로 거의 중간(3.00)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혼집단과 사별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혼집단보다 사별집단이 더 높은 생활 만족을 보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가족자원에서 밝혔듯이 이혼집단보다는 사별집단이 더 많은 자원과 효율적인 대처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더 높은 생활만족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선행연구(Gove & Shin, 1989)와 일치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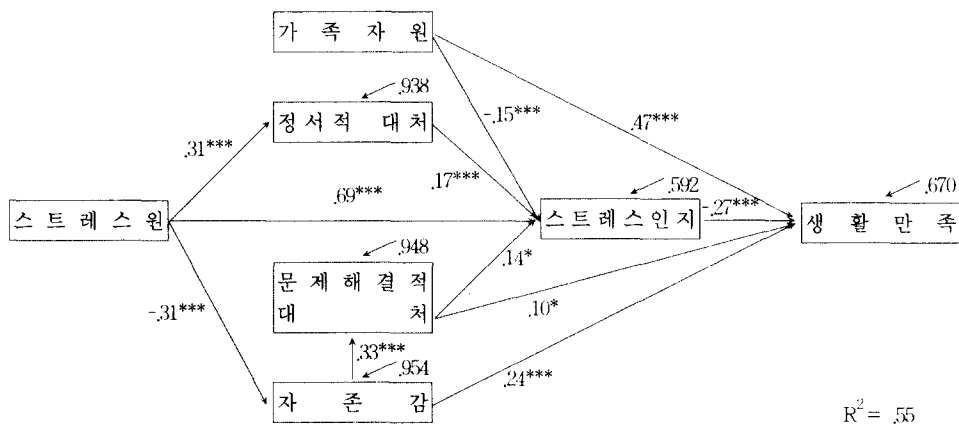
편모의 우울에서는 평균 3.06으로 나타났으며 이혼집단과 사별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으로 사별집단과 이혼집단의 가족자

원, 스트레스, 대처, 심리적 복지 영역을 살펴본 결과 이혼집단이 사별집단보다 더 적은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지하며 대처에서도 더 소극적 대처 행동을 보이고 전체적으로 가족자원이나 대처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생활만족 또한 더 낮게 나타나 사별집단보다 이혼집단의 전반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2. 편모의 스트레스원, 자존감, 가족지원, 대처, 스트레스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모형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표 3>. 회귀가정의 만족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Durbin Waston계수(DW)를 산출한 결과 2에 근접하고 있으며 변인간 상관이 .70이하로 나타나 잔차간자기상관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회귀 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05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수를 중심으로 경로모형을 도식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는 계수를 사용하였다.

- 1) 스트레스원, 자존감, 가족자원, 대처, 스트레스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인과 효과
- 변인들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인과효과는 <표



<그림 1> 편모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인과모형

〈표 2〉 스트레스원, 자존감, 가족자원, 대처, 스트레스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인과효과

변 수	총효과	인 과 적 효 과				비인과적 효 과
		직접효과	간 접 효 과			
			자 존 감	문제해결적대처	스트레스인지	
스트레스원	-.26	-	-.07	-	-.19	-.00
자존감	.55	.24	-	.03	-	.28
가족자원	.61	.47	-	-	.01	.10
정서적 대처	-.17	-	-	-	-.05	-.12
문제해결적대처	.24	.10	-	-	-.04	.18
스트레스인지	-.40	-.27	-	-	-	-.13

2)와 〈표 3〉과 같다. 생활만족에 대한 총인과 효과는 가족자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자존감, 스트레스인지, 스트레스원, 문제해결적 대처, 정서적 대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자원, 스트레스인지, 자존감, 문제해결적 대처는 생활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가족자원이 많다고 인지 할수록, 문제해결적 대처를 많이 할수록 생활만족은 높게 나타난다.

생활만족에 대한 인과적 효과를 보면 스트레스원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부적인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원이 적을수록 자존감이 높고, 스트레스가 적다고 인지하여 생활만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자존감은 유의한 정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약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존감이 높을수록, 문제해결적 대처를 하여 생활만족이 높아진다. 정서적 대처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부적인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대처를 하지 않을수록 스트레스는 낮아져 생활만족은 높아진다. 문제해결적 대처는 유의한 정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간접적인 영향 또한 주고 있다. 문제해결적 대처를 하지 않을수록, 스트레스가 낮아져 생활만족은 높아진다. 스트레스인지는 생활만족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 스트레스인지가 낮을수록 생활만족은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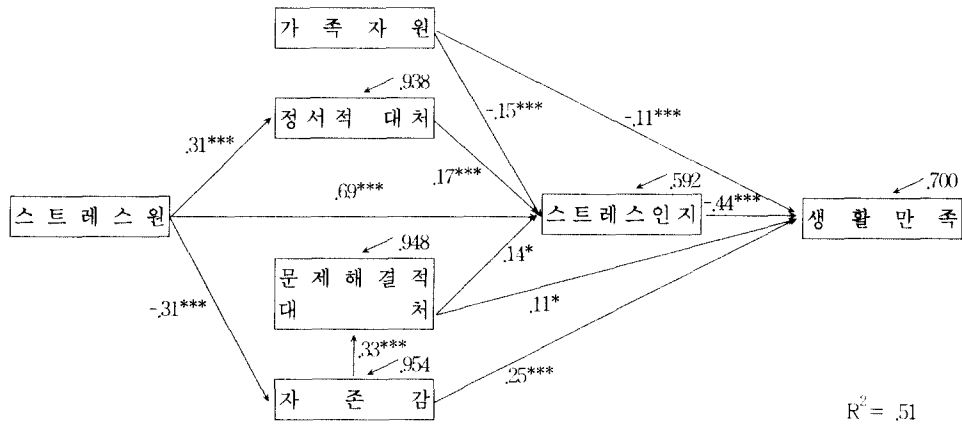
스트레스원은 편모의 생활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자존감을 통해 생활만족에 긍

정적 영향을 주며 스트레스인지를 통해 생활만족에 완화된 부정적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인과적 효과는 선행연구들(김정옥, 1995; 임재희, 1995; Lavee, McCubbin & Olson, 1987; Lavee & Olson, 1991)에서도 확인되었다. 문제해결적 대처 또한 생활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보다 스트레스인지를 통해 생활만족에 주는 영향이 크며 가족자원은 다른 변인의 경로를 통한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생활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이 더 의의있게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만족에 인과적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는 자존감과 스트레스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스트레스원, 자존감, 가족자원, 대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인과 효과

우울에 대한 총인과 효과를 보면 스트레스인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스트레스원, 자존감, 정서적 대처, 가족자원, 문제해결적 대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존감, 가족자원, 정서적 대처, 문제해결적 대처, 스트레스인지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가족자원을 많다고 인지할수록, 정서적 대처와 문제해결적 대처를 많이 할수록 스트레스를 낮게 인지할수록 우울은 낮게 나타났다.

우울에 대한 인과적 효과를 보면 스트레스원은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는 않으나 유의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 스트레스원이 적을수록 자존감이 높아지고 스트레스인지가 낮아져 정서적 대처도 덜하게 되어 우울이 낮아진다. 자존감은



〈그림 2〉 편모의 우울에 미치는 인과모형

유의한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주며 동시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자존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지며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문제해결적 대처를 하게 되어 우울이 낮아진다. 가족자원은 유의한 직접적인 부적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또한 주고 있으나 가족자원이 많다고 인지할수록 스트레스는 낮아져 우울이 낮게 나타난다. 정서적 대처는 우울에 유의한 직접적인 정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을 갖는다. 즉 정서적 대처를 하지 않을수록 스트레스인지가 낮아져 우울은 낮아진다. 문제해결적 대처는 우울에 직접적인 유의한 정적 영향을 나타내며 간접적 영향을 갖는다. 즉 문제해결적 대처를 하지 않을수록 스트레스인지가 낮아져 우울은 낮아진다. 스트레스인지는 유의한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 스트레스인지가 낮을수

록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

스트레스원은 우울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정서적 대처, 스트레스인지, 자존감을 통해 보다 완화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자원, 정서적 대처와 문제해결적 대처는 스트레스인지를 통해 우울이 더 큰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인지의 중재효과를 엿볼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Lavee, McCubbin & Patterson, 1989)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스트레스원이 가족자원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인과적 효과가 없다는 기미라(1995)의 연구와는 일치하나 스트레스원이 우울에 가족자원을 통해 효과를 갖는다는 선행연구(DeGamo & Kiston, 1996; Lin & Ensel, 1989)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요약

〈표 3〉 스트레스원, 자존감, 가족자원, 대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인과효과

변수	총효과	인과적효과					비인과적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자존감	정서적대처	문제해결적대처	스트레스인지	
스트레스원	.49	-	.08	.05	-	.30	.06
자존감	-.44	-.25	-	-	.03	-	-.22
가족자원	-.23	-.11	-	-	-	-.07	-.05
정서적 대처	.42	.17	-	-	-	.08	.17
문제해결적대처	.07	.11	-	-	-	.06	-.10
스트레스인지	.64	.44	-	-	-	-	.20

하면 우울에 인과적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는 자존감, 대처와 스트레스인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만족에 주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존감, 가족자원, 문제해결적 대처, 스트레스인자로 나타났는데 친구나 친척 지지 등의 가족자원이 많은 경우(안명자, 1995; 조희선, 1991; 한경혜, 1993; Gerstel, 1988; Plummer & Koch-Hattman, 1986), 대처를 잘 하는 경우(한경혜; Berman & Turk, 1981),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Burman, 1986; Pett, Vaughan-Cole & Wampold, 1994; Shapiro, 1996) 생활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Burden, 1986; Berman & Turk, 1981; Pett, Vaughan-Cole & Wampold, 1994; Shapiro, 1996), 대처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한경혜, 1993; Berman & Turk, 1981)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편모의 전반적인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자존감, 가족자원의 적절한 인지, 효율적인 스트레스대처 등의 활용을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리라 본다.

V. 요약 및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편모의 스트레스원, 가족자원, 대처,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의 일반적 경향을 보면 편모의 스트레스원은 중간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으며 각 하위영역의 정도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자존감도 중간보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사별과 이혼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 가족자원은 중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물질적 지지, 가족의 건강도 I(자존감과 의사소통), 재정적 복지, 정서적 지지, 가족의 건강도 II(숙달감과 성취)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대처는 중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문제해결적 대처가 정서적 대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별과 이혼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은 중간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사별과 이혼집단간의 차이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영역 중 경제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활만족은 거의 중간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혼집단보다 사별집단이 더 높은 생활만족을 보였다. 우울에서는 평균 3.06으로 나타났으며 이혼집단과 사별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 생활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자존감, 가족자원, 문제해결적 대처, 스트레스인자로 나타났으며 생활만족을 55% 설명해 주고 있다. 그의 자존감, 문제해결적 대처, 스트레스인자가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자존감, 가족자원, 정서적 대처, 문제해결적 대처, 스트레스인자로 나타났으며 우울을 51% 설명해 주고 있다. 그의 자존감, 정서적 대처, 문제해결적 대처, 스트레스인자가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편모의 심리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변인 중 대처의 중요성을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문제해결적 대처가 생활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제해결적 대처는 편모의 자존감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생활만족에 인과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생활만족 향상에 높은 자존감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존감 향상 방법 및 적절한 대처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편모의 스트레스원에 따른 스트레스인지 정도에 중요한 매개적 작용을 하는 변인이 정서적 대처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정서적 대처를 하는 경우 정서적 대처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보다 스트레스인지는 큰 폭으로 상쇄되었다. 따라서 스트레스원이 많은 경우 스트레스인지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서적 대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셋째, 편모의 가족자원은 생활만족과 우울에 각

각 직접적인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가족자원이 스트레스인지를 거쳤을 경우 심리적 복지는 감소되었다. 즉 가족자원은 심리적 복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핵심적 요인으로 편모의 전반적인 심리적 복지 향상을 위해 가족자원의 활용 및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 참고문헌

- 1) 공세권 조애저 허미영(1995). 가족결혼의 유형별 특징과 가족정책의 접근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95-03.
- 2) 기미라(1995). 개인적 자원이 스트레스와 갈등척락 및 우울증과의 관계에 미치는 완충효과. 한국 교원대 석사논문.
- 3) 김선영(1991). 미망인의 가족스트레스와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 4) 김영희(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박사논문.
- 5) 김정옥(1993). 이혼의 사회적 배경과 이혼원인의 이론적 고찰. 이혼과 가족문제, 하우, 15-40.
- 6) 김정옥(1995). 가족스트레스, 가족체계유형, 가족복지와의 관계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3), 101-112.
- 7) 김정자(1988). 저소득층 모자가족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가을, 5-41.
- 8) 박상희(1993). 저소득층 모자가족의 스트레스와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 석사논문.
- 9) 신화용 조병은(1996). 편부모가 인지한 가족환경과 사회심리적 적응. 늘어나는 편부모가정 '96 가정 복지세미나, 5-31.
- 10) 안명자(1994). 친족지원과 사별한 편모의 심리적 복지감.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 11) 이미정(1994). 수험생 가족의 디스트레스, 자원, 우울증과의 관계분석. 효성여대 석사논문.
- 12) 임재희(1995). 중년기가족의 가족스트레스, 자원, 우울증과의 관계분석. 효성카톨릭대 석사논문.
- 13) 정현숙(1993). 이혼과 자녀문제의 이론적 고찰. 이혼과 가족문제, 하우, 105-154.
- 14) 장재정(1987). 중년기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 15) 조희선(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비교 연구. 성신여대 박사논문.
- 16) 통계청(1995).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 통계청.
- 17) 통계청(1996). 인구동태통계연보 : 통계청.
- 18) 한경혜(1993). 이혼과 가족문제. 하우, 79-104.
- 19) Amato, P.R.(1993).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 Theories, hypothesis, and empirical support. *JMF*, 55(1), 23-38.
- 20) Bahr, S.J.(1982). The pains and joys of divorce : A survey of Mormons. *Family Perspective*, 191-200.
- 21) Balkwell, C.(1981). Transition to widowhood : A review of the literature. *FR*, 30, 117-127.
- 22) Bankoff, E.A.(1983).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to widowed. *JMF*, Nov, 827-839.
- 23) Berman, H.W. & Turk, C.D.(1981). Adaptation to divorce : Problems and coping strategies. *JMF*, Feb, 179-189.
- 24) Boss, P.(1987). Family stress : Perceptions and context. pp695-723 in Marvin B. Sussman and Suzann Steimetz(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 Pleum.
- 25) Bowen, L.G., Orther, K.D. & Zimmerman, I.L.(1993). Family adaptation of single parents in the United States army. *FR*, 42(3), 293-304.
- 26) Bradburn, N.M.(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 Aldine.
- 27) Billings, A.G. & Moos, R.H.(1984).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PSp*, 46(4), 877-891.
- 28) Burden, D.S.(1986). Single parents and the work setting : The impact of multiple job and home life responsibilities. *FR*, 35(1), 37-43.
- 29) Bursik, K.(1991). Correlates of women adjustment during the separation and divorce process. *Jnl of Divorce*, 15, 137-161.

- 30) Campbell, M.L. & Moen, P.(1992). Job-family role strains among employed single mothers of preschoolers, *FR*, 41, 205-211.
- 31) Clark, P.G., Siviski, R.W. & Weiner, R.(1986). Coping strategies of widowers in the first year. *FR*, 35, 425-430.
- 32) Colletta, N.D.(1979). Support systems after divorce : Incidence and impact, *JMF*, 41, 837-846.
- 33) Compas, B.E. & Williams, R.A.(1990). Stress, coping, adjustment in mothers and young adolescents in single and two-parent families. *American Jnl of Community Psychology* Aug, 18(4), 525-545.
- 34) Deacon, R., & Firebaugh, F.(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 (2nd ed.), Boston : Allyn & Bacon.
- 35) DeGarmo, D.S. & Kiston, G.C.(1996). Identity relevance and disruption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distress for widowed and divorced women, *JMF*, 58, 983-997.
- 36) Demo, D.H. & Acock, A.C.(1996). Singlehood, marriage, and remarriage-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family relationships on mothers' well-being. *Jnl of Family Issues*, 17(3), 388-407.
- 37) Demo, D.H., Small, S.A. & Savin-Williams, R.C.(1987). Family relations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JMF*, 49(4), 705-715.
- 38) Doherty, W.J., Su, S. & Needle, R.(1989). Marital disrup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panel study. *Jnl of Family Issues*, 10(1), 72-85
- 39) Dytell, R.S. & Schwartzberg, N.S.(1986). Work and family stress and strain outcomes among males and female teachers. Paper presented at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vention, N.Y.
- 40) Fine, M.A., Brenda, W.D., & Voydanoff, P.(1986). Adjustment and satisfaction of parents : A Comparison of intact, single-parent, and step-parent families. *Jnl of Family Issues*, 7(3), 391-404.
- 41) Fine, M.A., Mckenry, C.P., Brenda, W.D., & Voydanoff, P.(1992). Perceived adjustment of parents and children : Variations by family structure, race and gender. *JMF*, 54(1), 118-127.
- 42) Folkman, S., Lazarus, R.S., Dunkel-Schetter, C., DeLongis, A. & Gruen, R.J.(1986). Dynamics of a stressful encounter :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PSP*, 50(5), 992-1003.
- 43) Gerstel, N.(1988). Divorce and kin ties : The importance of gender. *JMF*, 50(1), 209-219.
- 44) Getting, A.(1980). Divorce outcome research : Issues and perspectives. *Jnl of Family Issues* 2, 350-378.
- 45) Gladow, N.W & Ray, M.P.(1986). The impact of informal support systems on the well-being of low income single parents. *FR*, 35, 113-123.
- 46) Gove, W.R. & Shin, Hee-Choon(1989).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divorced and widowed men and women. *Jnl of Family issues*, 10(1), 122-144.
- 47) Greene, R.W. & Feld, S.(1989). Social support coverage and the well-being of elderly widows and married women. *Jnl of Family issues*, 10(1), 33-52.
- 48) Hennon, C.B.(1983). Divorce and the elderly : A neglected area of research. pp 149-172 in Family relationships in later life, edited by Timothy H.Brubaker, Beverly Hills, CA : Sage.
- 49) Hill, R.(1971). Families under stress. Westport, Conn : Greenwood Press.
- 50) Hughes, M. & Gove, W.R.(1981). Living alone, social integration and mental health. *American Jnl of sociology*, 86, 48-74.
- 51) Hunt, M.W. & Hunt, B.(1977). The divorce experience. N.Y. : McGraw-Hill.
- 52) Hyman, R. & Wog, D.(1982). Stressful life events and illness onset : A review of crucial variable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5(1), 155-183.

- 53) Katz, R. & Pesach, N.(1985). Adjustment to divorce in Israel : A comparison between divorced men and women. *JMF*, Aug, 765-771.
- 54) Kiston, G.C., Babri, K.B., Roach, M.J., Placidi, K.S.(1989). Adjustment to widowed and divorce. *Jnl. of Family issues*, 10(1), 5-32.
- 55) Lavee, Y., McCubbin, H.I. & Patterson, J.M.(1985). The double ABCX model of family stress adaption : An empirical test by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JMF*, 47, 811-825.
- 56) Lavee, Y. & Olson, D.H.(1989). family Types and response to stress. *JMF*, 53, 786-798.
- 57) Lazarus, R.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s Publing Co.
- 58) Lin, N. & Ensel, W.M.(1989). Life stress and health : stressors and resour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382-399.
- 59) Marks, N.F.(1995). Midlife marital status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relationships with adult childre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nl. of Family issues*, 16(1), 5-28.
- 60) Mastekaasa, A.(1994). Psychological well-being and marital dissolution select effects. *Jnl. of Family issues*, 15(2), 208-228.
- 61) McCubbin, H.I.(1981).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FILE). St. Paul Minnesota : Family Social Science, the University of Minnesota.
- 62) McCubbin, H.I., & Comeau, J.K.(1987). FIRM : Family Inventory of Resources for management. In H.I. McCubbin & A. I. Thompson(eds.), Family assessment inventories for research and practice,(pp. 145-160). Madison : Uiversity of Wisconsin.
- 63) McLanahan, S.S.(1983). Family structure and stress : A logitudinal comparison of two-parent and female-headed families. *JMF*, 45, 347-357.
- 64) McLanahan, S. & Booth, K.(1989). Mother-only families : Problems, prospects, and politics. *JMF*, 51(3), 557-580.
- 65) O' Bryant, S.(1988). Sibling support and older widows' well-being. *JMF*, 50(1), 173-183.
- 66) Olson, D.H. & Barnes, H.L.(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t. Paul : Univ. of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 67) Orther, D.K. & Neenan, P.A.(1996). Children's impact on stress and employability of mothers in poverty. *Jnl. of Family issues*, 17(5), 667-687.
- 68) Parkes, C.M. & Robert, S.W.(1983). Recovery from bereavement. N.Y. Basic Books.
- 69) Parker, L.(1994). The role of workplace support in facilitating self-sufficiency among single mothers on welfare. *FR*, 43(2), 168-173.
- 70) Pett, M.A., Vaughan-Cole, B., & Wampold, B.E.(1994). Maternal employment and perceived stress-Their impact on children's adjustment and mother-child interaction in young divorced and married families. *FR*, 43(2), 151-158.
- 71) Pittman, J.F. & Lloyd, S.A.(1988). Quality of family life, social support, and stress. *JMF*, 50(1), 53-67.
- 72) Plummer, L.P & Koch-Hatterm, A.(1986). Family stress and adjustment to divorce. *FR*, 45(4), 523-529.
- 73) Price-Bonham, S. & Balswick, J.O.(1980). The noninstitutions : Divorce, desertion, and remarriage. *JMF*, 42(4), 959-972.
- 74) Radloff, L.(1977). The CED-S scale :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75) Rempel, J.(1985). Childless elderly : What are they missing?. *JMF*, 47, 343-348.
- 76) Richards, L. & Schmiede, C.(1993). Problems and strengths of single-parent families Implication for practice and policy. *FR*, 42, 277-285.

- 77)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Y : Princeton Universty Press.
- 78) Schwartzberg, N.S. & Dytell, R.S.(1988). Family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In Goldsmith, E.(Eds) Work and family :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 79) Shapiro, A.D.(1996). Explaining psychological distress in a sample of remarried and divorced persons.-The influence of economic distress. *Jnl. of Family Issues*, 17(2), 186-203.
- 80) Simons, R.L., Beamman, J., Conger, R.D., & Chao, W.(1993). Stress, support, and antisocial behavior trait as determinents of emotional well-being and parenting practices among single mothers. *JMF*, 55(2), 385-398.
- 81) Small, S.A.(1988). Parental Self-esteem and its relationship to childrearing practices, parent-adolescent interaction and adolescent behavior. *JMF*, 50(4), 1063-1072.
- 82) Spanier, G.B. & Castro, R.F.(1979). Adjustment to separation and divorce : A qualitative analysis. In G. Levinger & C.O. Moles,(Eds) Separation and divorce, N.Y. : Basic Books.
- 83) Spanier, G.B. & Thompson, L.(1984). Relief and distress after marital separation. *Jnl of divorce*, 7, 31-49.
- 84) Taylor, R.D. & Roberts, D.(1995). Kinship support and maternal and adolscent well-being in economically disadvantaged African-American families. *Child Dev*, 66, 1585-1597.
- 85) Umberson, D.(1989). Relationship with children : Explaining parents' psychological well-being. *JMF*, 50(4), 999-1012.
- 86) Webster-Stratton, C.(1989). The relationship of marital support, conflict, and divorce to parent perceptions, behaviors, and childhood conduct problems. *JMF*, 51(2), 417-430.
- 87) Weigarten, H. & Bryant, F.B.(1987). Marital Stress and the meaning of subjective well-being : A strustural analysis. *JMF*, 49(4), 883-892.
- 88) Weiraub, M. & Wolf, B.M.(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s on mother-child interaction in single and two-parent families. *Child Dev*, 54, 1297-1311.
- 89) Weiss, R.S.(1975). Marital separation. New York : Basic Books.
- 90) White, L. & Edwards, J. N.(1990). Emptying the nest and parental well-being : An analysis of national panel dat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235-242.